

가수 김연자 “맛·멋의 고장 전남 발전 힘껏 응원합니다”



전남도, 고향사랑기부제 동행 응원 릴레이...세번째 주자

“트로트 가수로서 예향 전남과는 특별한 인연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맛과 멋의 고장 전남이 고향사랑기부제와 함께 더욱 발전하도록 힘껏 응원합니다.”

원조 한류스타이자 ‘아모르파티’, ‘블링블링’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으며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가수 김연자(사진) 씨가 전남 고향사랑기부제 동행 응원 릴레이에 나섰다. 전남도는 향우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와 참여 방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남 고향사랑기부제 동행 응원 릴레이’를 추진하고 있다. 배우 김수미씨가 선발주자로 나선 가운데 김환식 전 총리에 이어 국민가수 김연자씨가 세 번째로 참여했다.

김연자씨는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단독 콘서트를 여는 등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한 원조 한류스타다. 지난 2021년 12월 전남홍보대사로 위촉돼 전

남 방문의 해, 남도음식문화관잔치 등 전남 홍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남도는 기부금 답례품으로 남도장터상품권, 친환경 경농산물구리미와 함께 여수 갯감치, 나주배, 영광 굴비 등 전남의 매력이 담긴 농수축산 특산품을 준비했다. 천연염색,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 등 체험·관광상품도 포함했다.

올 1월 본격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액의 30% 이내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시스템과 농협은행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이탈리아문화원·보문복지재단 협약



31일 광주비엔날레재단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여한 미켈라 린다 마그리 주한이탈리아문화원 원장,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정영현 보문복지재단 이사장(왼쪽부터).

(재)광주비엔날레와 주한이탈리아문화원, 보문복지재단이 제14회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프로젝트의 성공 개최를 위해 상호 교류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재)광주비엔날레는 31일 광주비엔날레 재단 사무동 3층 회의실에서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미켈라 린다 마그리 주한이탈리아문화원 원장, 정영현 보문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파빌리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보문복지재단은 이날 후원금 2000만원도 전달했다.

오는 4월 열리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는 본전시 이외에 9개국에 참여하는 파빌리온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날 협약식은 보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광주구 동국미술관에

서 열리는 이탈리아 파빌리온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마련됐다.

미켈라 린다 마그리 원장은 “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에 균등하게 자리매김한 광주비엔날레와 협력, 이탈리아 작가들을 소개하게 돼 매우 영광이다”며 “양국이 더욱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영현 이사장은 “서양예술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이탈리아 미술의 최신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광주구에서 열리게 돼 기대감을 갖고 있다”며 “비엔날레와 연계한 이탈리아 파빌리온 프로젝트가 시민들에게 호응과 관심을 받고 이를 계기로 광주구의 문화예술로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산소방서, 용진터널서 유관기관 대응체계 구축 소방훈련

광주 광산소방서는 지난달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와 관련해 유기적인 유관기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용진터널에서 지난 30일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훈련은 광산소방서와 용진터널관리계, 광산경찰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과 4개 기관이 참여하고, 40여명 인원과 소방펌프차, 구조차 등 9여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훈련은 용진터널 내 불래이프로 인한 터널 벽 충돌사고로 차량화재가 발생해 운전자가 차량에 고립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광산소방서에서는 사고 주변 교통통제, 용진터널관계자 초동대응, 차량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실제 터널

화재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했으며, 그 중에서도 제트팬을 활용한 터널 내 배연 및 인명대피 훈련을 중점으로 진행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3·1문화상에 조승우·김대진·송재복



왼쪽부터 조승우 교수, 김대진 총장, 송재복 교수.

재단법인 3·1문화재단은 제64회 3·1문화상 수상자로 조승우 연세대 교수,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송재복 고려대 교수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승우 교수는 줄기세포와 조직공학을 기반으로 한 인공 뇌를 구현한 공로를 인정받아 학술상 자연과학 부문 수상자로 뽑혔다.

김대진 총장은 세계적 후학을 양성하는데 기여한 예술교육자라는 평가를 받아 예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기술·공학상을 받게 된 송재복 교수는 독자적인 다자 유도 중력 보상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세계 로봇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1억 원을 준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마녀의 게임(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내 눈에 콩깍지(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뽀 좋아 좋아 스페셜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이슈 픽 쌤과 함께(재)	00 두뇌공조(재)	15 꾸러기 식사교실(재) 45 헬로키즈 과학교실(재)	00 애니갤러리 30 안녕 자동차야 45 헬로키즈 12 봄바
12	00 KBS 뉴스 12	15 배틀트립 2(재)	00 12 MBC 뉴스 25 일타강사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모세모
1	00 KBS네트워크특선 아마도 마지막 존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열린채널 50 어린이 동물티비			00 뉴스브리핑
3	20 팔도방송(재)	00 KBS 뉴스타임 10 두리둥실 몽계공항 3(재) 30 TV 유치원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UHD 환경스페셜 2(재)	55 5 MBC 뉴스	00 최강 1교시(재)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내 친구 반인반어 15 시크릿 주주 베스트프렌즈 30 꿀잼 영화가 좋다 50 통합뉴스룸 ET	10 PD수첩(재)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분방을 보자	50 특집다큐 농사직설(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목포국 특집다큐 조선산업의 불무연산 탄소제로	50 태풍의 신부	05 마녀의 게임 40 MBC 뉴스테크	45 닥터 365 50 SBS 8 뉴스
8	30 내 눈에 콩깍지	30 옥탑방의 문제아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9	50 연모(재)	00 일타강사	00 골때리는 그녀들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더 라이브		30 라디오스타	40 순정파이터
11	30 KBS 뉴스라인	00 9층 시사극 40 세상의 모든 다큐		
12	10 시사기획 창(재)	35 아이 러브 스포츠	10 꼭두의 계절(재)	20 7학년 주식회사(재) 50 전국 TOP 10 가요쇼(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10 한국의 둘레길	17:0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0:30 한국기행(재)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05:5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히어로 씨클
06:10 세계테마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8:00 생방송 워터즈 해결단
07:00 꼬마버스 타요	12:00 EBS 뉴스 12	19:00 정글 플래닛
07:15 하프와 친구들	12:10 극한직업	19:30 한국의 둘레길
07:45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13:0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9:50 건축탐구-집
08:00 똥덩쿨 유치원	13:50 EBS 다큐프라임	20:40 세계테마기행
08:20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	14:45 한국의 둘레길	<기다렸다. 그 맛 타이완 -지금 먹으러 갑니다. 타이완>
08:35 한글용사 아이야	15:05 나를 위한 매일 수업	21:30 한국기행
08:50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재)	15:35 꾸러기 천사들	<노포 3부 생선 꼬신내 나는 골목>
09:05 최고다! 호기심딱지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21:50 EBS 다큐프라임
09:20 시몽	16:15 페파 피그	22:45 인간과 바다
09:35 타타와 쿠마	16:25 슈퍼두퍼 잉글리시(재)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40 우당탕탕 은하안전단	16:40 똥덩쿨 유치원(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1일(음 1월 11일 庚寅)

<p>36년생 변수와 유혹 앞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었을 것이니 후회하지 않게 행동하자. 48년생 관련지어 생각해야 해답을 도출할 수 있다. 60년생 예측 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72년생 평상시에 잘 갖추고 있었다면 덕을 보게 되리라. 84년생 삼가지 않으면 사면초가에 놓일 것이다. 96년생 자기 위주의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행운의 숫자 : 48, 94</p>	<p>42년생 고정 관념을 버리지 않으면 상당히 곤혹스럽겠다. 54년생 산뜻한 새 모습으로 과감하게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 66년생 진행의 정도가 적절하니 앞서 가지 않는 것이 낫다. 78년생 소망이 이루어지려는 참나에 놓여 있느니라. 90년생 순간간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리라. 02년생 양질을 추구해야 합리적이다. 행운의 숫자 : 01, 79</p>
<p>37년생 유동적인 변수가 매우 크므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열어 두자. 49년생 영광이 따르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하루이다. 61년생 원인 요소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만 수습이 가능해진다. 73년생 우선시 해줘야 할 바가 분명히 있다. 85년생 안정된 궤도에 진입하리라. 97년생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때이다. 행운의 숫자 : 32, 82</p>	<p>43년생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는 성국이랄 수 있다. 55년생 지금 진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곤혹스러워질 수도 있다. 67년생 파격적인 재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79년생 중간 점검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91년생 행운의 여신이 길을 안내하고 있다. 03년생 남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지도 모른다. 행운의 숫자 : 10, 83</p>
<p>38년생 미흡함이 보이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처리해야겠다. 50년생 지난 날에 비추어 가볍게 여긴다면 큰코다칠 수도 있다. 62년생 음양의 기운이 교체하는 시기이니 신중을 거듭하라. 74년생 협조를 가장해서 자신의 실속을 채우려는 이가 보인다. 86년생 변화하는 정황까지 감응해야 한다. 98년생 예견치 못한 점들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52, 53</p>	<p>44년생 원리를 잘 응용할 줄 아는 삶의 지혜가 요망된다. 56년생 과거에 했던 그대로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68년생 으뜸의 것으로 기준을 삼을 필요가 있다. 80년생 하나씩 차분하게 정리해 나간다면 순조로워진다. 92년생 필연적인 형국이니 만큼 각오하고 임하라. 04년생 처음부터 끝까지 균일해야 실속적이다. 행운의 숫자 : 15, 97</p>
<p>39년생 요령을 활용하다 보면 참신한 방법들을 연쇄적으로 터득하게 된다. 51년생 불변하던 시금치 개선택을 도모하는 것이 좋다. 63년생 미끼일 수 있으니 유혹에 넘어가서는 아니 된다. 75년생 주변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형국이로다. 87년생 조절을 잘 해야 무리함이 없을 것이다. 99년생 장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38, 86</p>	<p>45년생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면서 새롭게 조망해 볼 필요가 있기에 된다. 57년생 연계시켜서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69년생 시종일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 한다면 성취할 가능성이 높다. 81년생 유동적인 변수까지 감안하자. 93년생 스트레스 해소를 잘 떠나자. 05년생 동선에 주목하라. 행운의 숫자 : 28, 96</p>
<p>40년생 주변인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경험을 살려서 대처한다면 무난하겠다. 52년생 아무리 발똥대도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64년생 반드시 실속 있는 관계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니라. 76년생 아예 꿈도 꾸지 않는 것이 속 편하리라. 88년생 성공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00년생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써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39, 54</p>	<p>34년생 미혹되어 제대로 걸려 들면 곤장 후회하게 될 것임을 알라. 46년생 전면적인 실행을 요하니 추진력을 높여야 할 때다. 58년생 당황하지만 않는다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 70년생 굳게 닫혔던 문이 신비롭게 열릴 것이다. 82년생 점점 활기를 띠면서 운로가 왕성해진다. 94년생 커다란 재앙의 불씨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24, 92</p>
<p>41년생 막힌 곳이 생기지만 쉽게 뚫을 수가 없어서 매우 답답하겠다. 53년생 확실한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 65년생 사람들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게 된다. 77년생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행한다면 불변함은 없을 것이다. 89년생 머지않아 가닥이 잡힌다. 01년생 핵심 가치에 중점을 두라. 행운의 숫자 : 16, 73</p>	<p>35년생 끝까지 절제된 언행을 한다면 시비수를 피해 갈 수 있다. 47년생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일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59년생 가만히만 있으면 될 일을 가지고 괜히 손대어서 역효과를 보게 된다. 71년생 필수 사항을 빠뜨리지 말아야겠다. 83년생 이면까지 고려하자. 95년생 더불어 행하고자 함이 유익하다. 행운의 숫자 : 04, 66</p>